

## 학습자로서 부모\*

김 민 호\*\*

〈 목 차 〉

- |                                   |         |
|-----------------------------------|---------|
| I. 머리말                            | IV. 맺음말 |
| II. 학습자로서 부모: 계몽의 대상인가? 각성의 주체인가? | * 참고 문헌 |
| III. 학습자로서 부모: 무엇을 어떻게 각성할 것인가?   |         |

### I. 머리말

“부모되긴 쉬어도 부모노릇하긴 어렵다”는 말이 있다. 자식을 낳았다고 해서 누구나 부모로서의 조건을 갖춘 것도 아니며, 올바른 역할을 수행할 능력을 자동적으로 갖게 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람으로서 부모노릇을 제대로 하려면, ‘부모의 역할과 자세’를 누군가로부터 배워야 하는 것이다. 사실, 동물들은 배우지 않아도 본능적으로 자기 새끼들을 잘 보호하고 기른다. 동물행동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갈매기는 부화하고 난 뒤에 알껍질을 부리로 쪼아 잘게 부수어, 알 껍질이 햇빛에 반사되어 아직 어리고 힘없는 새끼들이 적에게 쉽게 노출되어 잡혀 먹히는 일이 없게 한다는 것이다. 또한, 어미 닭은 새끼 병아리의 울음 소리를 듣고 외부의 다른 짐승들로부터 새끼들을 보호하려는 행동을 취하게 된다. 동물들의 이러한 ‘모성애적 행동’들은 본능적임에 비해, 인간의 부모로서의 역할은 사회문화적인 것이다. 즉, 배우지 않고서는 부모노릇을 할 수 없는 것이다. 이처럼 인간은 배워야 한다는 점에서 동물과 구별된다.<sup>1)</sup>

전통사회에서 부모의 역할과 규범은 가정<sup>2)</sup>을 통해 배웠다. 전통사회는 일터와 가정이

\* 이 글은 한국지역사회교육 제주도협의회가 주최한 제1회 제주지역사회 심포지움(1994. 12. 9)에서 발표했던 논문을 수정·보완한 것이다.

\*\* 제주교육대학교 교육학과 부교수

1) 그러나, 인간이 동물과 다르지 않은 점은 부모로서의 행동이 ‘생존전략’의 차원에서 이뤄진다는 점이다. 즉, 동물이건 인간이건 이들의 행위는 생존과 직결되는 것이다. 서봉연(역) (1983). 발달의 이론. 서울: 중앙적성출판부, 제3장 참조.

2) 전통사회의 가족이란 전형적인 ‘가부장제 가족’으로서 ① 조부모, 부모, 장남부부, 장손부부와 같이 제사 상속자를 주축으로 하는 직계가족 형태이며 ② 집안(家)의 제일 윗세대의 부계남자가 강한 통제를

분리되지 않은 상황이므로, 자녀들은 부모, 조부모와 가까이 생활하면서 장차 부모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간접적으로 보고 배울 수 있었다. 또한, '신참 부모'들은 자녀를 양육하고 교육하는 데 따른 부모로서 역할과 규범을 '고참부모'인 자신들의 부모나 형제·친척 등에게서 직접 배우기도 했다. 나아가 그 신참 부모가 고참 부모가 되고 나면, 또 다시 젊은 신참 부모들을 가르치게끔 되어 있었다. 한마디로 말해, 부모의 역할과 규범은 '도제제도'를 통해 전수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산업화에 따라 일터와 가정이 분리되고 확대가족이 줄어든 결과, 부모의 역할과 규범 학습이 도제제도 형식으로는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이 되고 말았다. 가정 안에서 3세대가 서로 만나, 자녀들이 부모나 조부모를 통해 직·간접으로 부모로서의 역할과 규범을 배울 기회가 상당히 제한되었기 때문이다. 인류가 생존하기 위해서는 부모의 역할과 규범을 새로운 형식을 통해 학습할 것이 요청되었다. 그리하여, 예비 부모들은 부모로서의 역할과 규범을 상당 부분 '학교제도'를 통해 배울 수 밖에 없었다. 하지만, 현대사회에서 '학교제도'는 부모의 역할과 규범을 전수하는 데 한계를 지닌다. 학교는 일상적 삶의 터전을 벗어나 아동들이 장차 성인으로서 삶을 잘 살도록 체계적인 준비를 하는 곳이고, 인류 문화 유산의 핵심을 교과라고 하는 이론적 지식으로 가르치는 곳이다. 그 결과, 학교의 준비교육만으로 성인이 된 뒤, 성인(여기서는 부모)으로서 역할을 능동적으로 수행해 나가기란 쉽지 않다. 성인 자신이 심리·사회적 발달 과정에서 흔들리고 있으며, 학교에서 배운 것과 사회현실 간에 시간차(time-lag)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다시말해, 오늘날 부모들에게는 성인으로서 부딪치는 고유한 문제들이 존재하며<sup>3)</sup>, 또한 시간차로 말미암아 부모들이 학교교육을 받을 당시의 교육내용으로는 오늘날 당면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없기 때문이다.<sup>4)</sup> 따라서 부모들이 오늘날 우리 사회가 당면한 문제들을 분명하고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학교교육 이후에도 비교적 단기

행사하며 ③ 부자관계가 다른 어떤 가족관계보다 중요시되고 ④ 가부장의 권위는 부계조상의 제사의 주관자라는 지위에 의해 뒷받침되며 ⑤ 가장의 지위계승자인 아들을 획득할 의무가 있고 ⑥ 가부장의 지위계승자인 장자는 다른 어떤 아들들 보다 많은 특권을 갖는다. 이러한 가부장제 가정은 조선중기 이후 대두하였다. 최재석(1986). 전통가족의 특성. 이산사회복지사업재단(편). 현대사회와 가족. 서울: 이산사회복지사업재단, 37-38.

- 3) E. Erikson은 인생을 8단계로 구분하면서, 청년기 이후에도 '친밀성 대 고립' '생신성 대 침체' '자아 통합 대 절망'이라는 심리사회적 위기가 성인 초기, 장년기 및 노년기에 각각 도래한다고 보았다. 이성진(역)(1984). 인간발달의 8단계. 이성진 외(공편). 교육심리학 논고 서울: 정민사, 127-157.
- 4) 부모대상의 강외와 언론매체를 통해 수집해 놓은 자료들을 볼 때, 오늘날 부모들이 겪는 독특한 어려움은 대략 다음과 같다고 여겨진다. 첫째, 가족의 정서구조가 가족 중심에서 개인 중심으로 변화하여, 자녀들이 부모의 계획에 잘 따르지 않고, 부모 역시도 자녀에 대한 책임의식이 과거에 비해 상대적으로 감소하였다. 자녀는 가정의 중요한 자산이기 보다는 경제적·정신적 부담을 주는 존재로 간주된다. 둘째, 여성의 역할에 대한 새로운 인식의 대두와 함께, 가정내 부부간 역할 분담에 따른 많은 긴장과 갈등이 노정되고 있다. 전통적인 가부장적 이데올로기와 현대의 남녀평등적 가치관이 남녀간에 뿐만 아니라, 남성과 여성 각자의 내면 세계 속에서 대립 하고 있다. 셋째, 우리 사회의 경쟁구조가 더욱

간의 융통성있는 '사회교육으로서 부모교육'을 받을 필요가 있다. 최근 우리 사회의 '부모교육'의 열기는 이를 입증하고도 남음이 있다.

사실, 우리 사회는 부모교육의 필요성을 일찌기 인식하고 나름대로 여러가지 준비를 해왔다. 여러 민간단체는 물론이고 정부에서조차 부모교육 수요를 조사하고, 이에 걸맞는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데 온갖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다. 더러는 몇몇 저명한 인사들의 부모교육 관련 강연이나 도서가 국민들의 입에 회자하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이들 부모교육 관련 도서나 강연, 혹은 교육 프로그램들이 오늘의 우리 부모들에게 과연 얼마나 효과적인지, 나아가 교육적으로 타당한지에 대해서는 별다른 연구가 없었다. 아직 부모교육의 역사가 짧아 부모교육에 대한 객관적 평가가 쉽지 않아서 이기도 하지만, 현재로서는 평가 이전에 양적 확대 그 자체가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보고 평가를 미룬데에도 그 원인이 있다. 하지만, 모든 교육이 그러하듯, 보다 나은 교육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이를 보다 교육적으로 타당하게 운영하려면, 이제까지의 활동을 평가하는 과정을 거쳐야 마땅하리라고 본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부모교육 평가 기준의 하나로서 '학습자를 어떻게 바라보는가'에 초점을 두어 기존의 부모교육의 한계를 지적하고 보완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 II. 학습자로서 부모 : 계몽의 대상인가? 각성의 주체인가?

일반적으로 학습(learning)이란, 유기체가 어떤 과정을 거쳐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거나 행동에 변화가 초래된 것을 가리킨다. 그러나, 학습이 어떤 과정을 통해 이뤄지는가에 대해서는 다양한 견해들이 있다. 먼저, 학습심리학의 연구들에 의하면, 학습의 과정은 보는 시각에 따라 '자극과 반응의 결합' '통찰' '인지구조의 발달' '정보처리 과정' 등으로 각각 다르게 명명되어 왔다. 또한, 학습심리학의 토대가 되었던 인식론에서는 지식의 원천을 '이성'이나 '경험' 혹은 '인간과 세계의 상호작용' 등에서 찾고 있다. 여기서는 이들 이론들을 소개할 여유가 없고, 또한 그럴 필요도 없다. 다만, '학습자로서 부모'에 대한 시사점을 찾기 위해 이들 여러 이론들이 학습자를 어떻게 규정하는가에 관한 기본 가정만을 논의하고자 한다.

학습자에 대한 기본 가정은, 학습과정에서 학습자를 피동적 존재로 보느냐 아니면

---

심화되면서, 학습조력자로서 부모의 역할에 강한 부담을 느끼고 있다. 자녀의 성공이 부모의 성공이며, 심지어는 자녀의 학교성적을 통해 부모가 부모구실을 제대로 하였는지를 가늠하는 분위기가 되어 가고 있다. 세계, 매스 미디어의 발달로 많은 정보가 아이들에게 걸러지지 않은 채 노출됨에 따라, 부정적 성인문화가 아동들에게 유입되고 부모로서 권위를 유지하기가 어려워지고 있다. 때로는 자녀들이 부모가 모르는 것을 질문할 때, 답답함을 느끼기도 한다.

능동적 존재로 보느냐에 따라 둘로 구분된다.

먼저, 학습자를 피동적 존재로 보는 입장에서는 배워야 할 가치있는 지식은 학습자 외부에 존재한다고 본다. 예컨대, 인류가 역사를 통하여 누적적으로 발전시켜온 문화의 알맹이로서 학교의 '교과'가 바로 그렇다. '교과'는 학습자가 당장 사회에서 써먹을 수 있는 지식이 아니다. 인류 문화의 영속성을 믿고 그것을 자기 것으로 삼아 인간다운 삶을 살아가는 데 요청되는 지식인 것이다. 학습자가 이 지식을 배워야 하는 이유는 단지 개체로서의 학습자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종족으로서의 인류가 선대의 업적을 보존·발전시키기 위해서다. 그런데, 학습자는 아직까지 그 지식을 습득하지 못했거나 습득하는 도중에 있다. 한마디로, 학습자는 무식한 셈이다. 따라서, 학습자가 인류문화유산으로서의 지식을 성공적으로 습득하려면, 도야와 단련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엄격한 자기수양과 인내와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학습자는 먹고 사는 일상적 생활로부터 최소한의 격리를 필요로 한다. 사실상 학교는 이러한 취지에서 생겨난 교육제도이다. 학교에 해당하는 그리스 말인 '스콜레'(schole)로서 '여가'를 뜻하는 것도 바로 이런 이유에서이다. 뿐만 아니라 교사는 사사로운 개인으로서가 아니라 인류문화의 대변자로서 그 알맹이인 교과의 가치에 헌신하면서 이를 제자들에게 전수하는 사람이다. 바꿔말해, 제자인 학습자를 '계몽의 대상'으로 간주하는 것이다.

다음에는, 학습자를 능동적 존재로 간주하는 입장을 살펴 보자. 여기서는 우선적으로 배워야 할 가치있는 지식은 학습자 내부에 존재한다고 본다. 또한, 학습을 전체 인류의 차원보다는 우선, 개별적 인간의 맥락에서 이해한다. 개인적 각성(personal revival)이 세계에 대한 계몽(enlightment)에 앞선다고 보기 때문이다. 인간은 누구나 고유한 개성과 자유를 지닌 어느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독자적 존재이며, 인간답게 산다는 것은 자신이 지닌 독특한 모습을 완전히 자각하는 것이고 '일반인'의 익명 속에 자신의 고유성을 포기하는 것은 불성실한 삶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학습은 바로 이러한 개개인의 각성을 능동적으로 모색하는 것이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가르치는 사람이 무엇을 전달하느냐보다 어떻게 가르치며 행동하느냐이다. 즉, 가르치는 사람이 일상생활 속에서 학습자와 어떤 인간관계를 맺으며 학습자의 각성을 촉진시키는가가 관건인 셈이다. 이를 위해 가르치는 사람은 자기 자신과 학습자에 대해 개방적이고 솔직한 진실성, 학습자를 나름대로 가치있는 고유한 인간으로 대하고 그의 현존 상태를 무조건적으로 수용하는 존중감, 그리고 자신을 학습자의 입장으로 바꾸어 놓고 거기서 진행되는 사실에 대해 민감하게 지각하고 느끼는 공감적 이해 등의 심리적 특성이 요구된다. 아울러 학습자는 개인적 각성이 이뤄질 수 있는 경우라면, 교과학습만이 아니라 어느 경우이건 관계없이 가르치는 사람이나 동료와의 사회적 삶에 능동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요컨대, 학습자는

‘각성의 주체’인 셈이다.

한편, 부모는 한 사람의 성인으로서 아동과 다른 특성을 지닌다. 즉, 부모는 자기들의 안녕을 타인에게 의존하는 아동이나, 의존적 행동과 독립적 행동 두 가지 모두를 나타내는 청소년에 비해 독립적인 삶을 살아가는 성인이다. 아울러, 부모는 자신의 독특한 개인적 경험으로부터 정체성을 확립해 나간다. 또 아동의 경우, ‘교수 가능한 순간’(teachable moment)이 주로 생리학적 발달 정도에 의존하나, 성인은 그 보다는 사회적 역할이나 기능과 관련된 즉각적 문제나 과업에 좌우된다. 따라서 부모교육은 성인으로서의 기능을 준비하는 아동교육과 달리, 자기의 잠재성을 깨닫고 올바른 의사결정을 하며 일반적으로 부모의 역할 속에 내재되어 있는 의무와 책임을 보다 잘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 점에 비추어 볼 때, 부모교육에는 학습자에 대한 위의 두 가지 가정 중 능동적 학습자의 관점을 적용하는 것이 보다 적합하겠다.<sup>5)</sup>

다시말해, 학습자로서 부모는 ‘계몽의 대상’이 아니라 ‘각성의 주체’인 셈이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부모교육에서는 부모들을 대체로 ‘계몽의 대상’으로 생각해 온 경향이 있다. 즉, 오늘날 핵가족 사회의 부모들은 자녀교육에 관해 무지하므로 더 배워야 한다고 보고, 각종 부모교육 프로그램, 서적, 방송 및 강연 등을 통해 부모들을 계몽해 왔다. 부모들에게 아동발달에 관한 기초 지식, 아동을 관찰하는 기술과 효과적으로 지도하는 방법, 자녀교육의 중요성과 부모가 담당해야 할 역할, 학습경험의 장으로서 가정 등을 가르쳐 왔다. 다시말해, 자녀교육에 필요한 지식과 기능 및 올바른 태도 등을 전수하고자 했다. 그러나, 그러한 부모교육은 과연 얼마만큼의 효과를 거두었는가? 오늘날 우리 사회의 부모들이 자신감과 책임의식을 가지고 자녀들을 올바르게 기르고 가르치는 데 기여했는가? 우리의 부모들이 자녀교육에서 겪는 어려움을 완화하거나 해소하는 데 실질적 도움이 되었는가? 이에 대한 답은 대체로 부정적이다. 자녀교육

5) 성인학습의 능동적 관점은 말콤 놀즈(Malcolm Knowles)의 안드라고지(andragogy)에서도 잘 나타난다. 즉, 그에 의하면, 성인교육은 아동 대상의 교육인 페다고지(pedagogy)와 구별하여 안드라고지라는 용어로 기술된다. 이 때, 안드라고지는 다음의 네 가지 가정에 기초하고 있다.

1. 성숙해짐에 따라 인간의 자아개념은 의존적인 인성에서 자기주도적인 인간존재로 변해간다.
2. 성인은 계속적으로 경험과 풍부한 학습자원을 축적한다. 성인의 경우, 개인적인 경험은 주체의식을 형성함으로써 높은 가치를 인정받는다.
3. 성인의 학습준비도는 사회적 역할의 발전적 과업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4. 개인이 성숙해짐에 따라, 지식의 미래 적용에서 즉각적인 적용으로 시간관에 변화가 이루어진다. 따라서 성인은 학습에 있어서 교과중심보다는 문제중심을 택하게 된다.

Knowles, M. (1980). *The Modern Practice of Adult Education*. Chicago : Association Press/Follett, 44-45 를 백중역(역) (1986). *성인교육의 이론과 실제*. 서울 : 덕성여자대학출판부, 92-93에서 재인용.

관련 지식은 확대되었으나, 부모로서 자녀를 돌보는 데 성공하고 있는 편은 못된다. 오히려, 무수한 지식들에 휩싸여 부모들이 '교육적 방향'을 하고 있다. 그토록 많은 부모 대상의 교육 프로그램, 자녀교육 관련 서적, 저명한 강사의 강연이나 방송 등이 자녀교육에 도움이 되기는 커녕, 오히려 자녀교육에 혼동만을 불러 일으키고 부모들을 우왕좌왕하게 만든 것은 아닌지를 반성해 봐야 한다. 이제까지의 부모교육이 효과적이지 못했다면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따져 봐야 할 것이다.

부모교육의 효과가 잘 나타나지 않는 것은 무엇보다도 '학습자로서 부모'에 대한 관점이 잘못 설정되었기 때문이다. 부모를 '각성의 주체'가 아닌 '계몽의 대상'으로만 보았기 때문이다. 앞서 언급했듯이, 사실 배움은 지식 그 자체에서 오지 않는다. 학습자의 주체적 자각을 통해서만이 배움이 가능하다. 각자 고유한 삶에 대한 자각에서부터 배움이 시작돼야 한다. 즉, 무엇을 얼마나 배울 것인가에 앞서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 어떤 상태에 있는가를 되돌아 보는 일이 선행되어야 한다. 옛부터 훌륭한 스승들은 제자에게 무엇을 가르치기 전에 제자의 배움에 대한 열정을 확인하곤 했다. 다시말해, 제자가 자신의 전 존재를 걸고 배움에 임하는가를 타진했다. 그래서, 처음에는 배움의 내용과 전혀 무관한 일(예컨대, 청소)부터 시키곤 했다. 배움에 임하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나는 과연 누구이며, 무엇을 원하는가, 내가 배우려는 것이 내 자신의 삶 전체와 어떤 관련이 있는가'를 일깨우기 위해서이다. 만일, 이러한 자기 각성 없이 배운다면, 배움의 결과는 자신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어떤 도움도 되지 못하고 오히려 해를 가져다 줄 가능성이 커진다. 소위 지식의 상품화가 초래될 수 있다.

### Ⅲ. 학습자로서 부모 : 무엇을 어떻게 각성할 것인가?

오늘날 우리 사회의 부모들을 '계몽의 대상'이 아니라 '각성의 주체'로 인식할때, 부모교육의 성격은 크게 달라진다. 부모에게 어떤 지식을 전달하기 보다는 그들 개개인의 각성을 부모교육의 일차적 목표로 삼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부모 개개인의 각성이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학습자로서 부모가 무엇을, 어떻게 각성한다는 뜻인가?

먼저, 학습자로서 부모는 '개인적 자아'를 각성해야 한다. 즉, 자기 자신이 부모 이전에 하나의 실존적 존재임을 인식하는 것이다. 이 세상에 들도 없으며 오직 한 사람만으로 존재함을 인식하는 것이다. 부모는 이 때 신(神)에게 귀의하든 그렇지 않든, 자신에 대한 존중감을 지닐 수 있다. 자아존엄성을 지닌 부모는 자신의 삶을 긍정하고 소중

하게 여기므로, 자신이 부모로서 어떤 상태에 있는 이를 극복해 내는 데 더 많은 능력을 발휘하게 되며 그 결과 자신만이 아니라 배우자와 자녀들에게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예컨대, 어머니의 취업이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에 관한 어느 연구에 의하면, 어머니의 취업 그 자체는 어머니와 자녀간의 유대 형성 기회를 양적으로 제한한 것은 사실이나, 사회활동에 종사하며 자신의 삶 전체를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어머니의 경우<sup>6)</sup> 자녀에게 오히려 좋은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다.<sup>7)</sup> 다시말해 어머니의 자아존중감이 어머니와 자녀의 양적 유대 형성의 부족을 보상하고서도 남음이 있었다는 것이다.<sup>8)</sup>

그러나, 부모의 개인적 자아 각성이 반드시 긍정적 결과만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다. 부모의 개인적 자아 각성은 부모로서의 삶을 자신의 삶의 일부로서만 바라보기에 때로는 “애들 나두고 집 나가는 어머니” “남편 나누고 바람피우는 가정주부” “바깥 일에 빠져 가정에 소홀한 가장”들이 생겨나기도 한다. 특히, 이제까지 자신의 선택(결혼, 직업)에 회의를 느끼고 더 늦기 전에 새로운 삶을 모색하려는 3, 40대 부모에게서 이런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기도 한다. 따라서, 부모의 ‘개인적 자아’ 각성은 ‘역사적 자아’와 ‘사회적 자아’의 각성에 의해 보완되어야 한다.

다음으로, 학습자로서 부모는 ‘역사적 자아’를 각성해야 한다. 현재의 나는, 과거의 나로부터 미래의 나로 뻗친 역사의 연장선상에 있음을 자각하는 것이다. 작게는 자신의 어린 시절과 현재 그리고 다가올 노년기라는 일생의 흐름에 대한 자각이요, 크게는 내가 머물렀던 과거 세계와 오늘의 현대사회 그리고 장차 살아갈 미래사회에 대한 자각이다.

사실, 부모로서 아이들을 훈육하고 가르치는 일은 일상생활 속에서 거의 습관화 되었다. 그만큼 자신을 되돌아 볼 기회도 별로 없다. 하지만, 어떤 경우(예컨대, 부모의 말을 따르지 않고 대드는 자녀에게 “이 자식이 건방지게 아버지에게 대들어!” 하면서 뱀다 한 대 쥐어 박은 경우)에는 부모로서 자신의 행위가 과연 정당한 것인지를 몰라 당황스러울 때가 있다. 바로 이 상황이 학습자로서 부모가 ‘역사적 자아’를 각성할 수 있는 시점이다. 부모로서 자신의 행위를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에 비추어 역사 속의

- 6) 취업모는 자신이 능력이 있다고 느끼고, 경제적으로 더 안정되며, 자기가 자기 인생의 책임을 진다고 느끼기 때문에 자아존중감이 높아진다. 박성연 (역) (1991). *인간발달 I - 아동발달*. 서울: 교육과학사, 589.
- 7) 일반적으로 여성은 자기생활에 만족하면 할수록, 부모로서의 능력을 더욱 발휘한다. Hoffman, L. (1979). Maternal employment. *American Psychologist*, 34(10)와 Hoffman, L. (1986). Work, family, and the child. In M. S. Pallak & R. O. Perloff (eds). *Psychology and work: productivity, change, and employment* Washington, DC: APA를 위 책 p. 590에서 재인용.
- 8) 전업주부로서 자신의 삶에 만족하지 못하며, 부정적 자아개념을 지닌 어머니의 자녀교육과 비교해 보라.

나를 찾는 것이다.

이 때, 부모로서 자신의 행위를 자신의 부모 세대의 '전통적' 가치 기준에 비추어 보면 옳은 것 같다가도 현대사회의 소위 '민주적' 가치관에 따르면 옳지 않아 보이기도 한다. 하지만, 자신의 행위와 말투를 되돌아 보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신의 부모의 것을 상당히 답고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 자신의 어린 시절, 부모의 행위를 부당하다고 느껴 그것을 결코 본받지 않겠다고 다짐했었지만, 은연중에 자신의 부모의 행위를 따라가고 있음을 보게 된다.<sup>9)</sup> 요컨대, 현재의 내가 과거로부터 형성되었음을 자각하는 것이다. 또한, 오늘날 부모들은 소위 21세기 미래사회에 과연 노년기의 부모로서 자녀들과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할지 난감해 하고 있다(아마 예전의 부모들도 그런 느낌을 가지셨을 것이다). 현 상황에서 다가올 미래사회를 내다 보고 바람직한 부모-자녀 관계를 준비하고 이를 실천에 옮길 때, 우리는 자신의 가정과 이 사회를 지켜갈 수 있을 것이다. 요컨대, 미래의 나는 현재의 나의 연장선상에 있음을 자각하고 이에 대비해야 한다.

끝으로, 학습자로서 부모는 '사회적 자아'를 각성해야 한다. 부모는 그들의 과거 어린 시절, 현재, 그리고 미래에 그들의 부모와 어떤 관계를 맺었고 또 맺을 것인지를 자각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배우자 및 자녀, 그리고 지역사회와는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를 각성해야 하는 것이다. 부모와의 관계는 앞서 언급했으므로 생략하고, 배우자, 자녀 및 지역사회와의 관계 자각에 대해 언급하고자 한다.

오늘날 부부들은 가정내 역할 분배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 여성의 취업 증가와 사회적 지위 신장에 따라 가사와 육아에 대한 남성의 참여가 늘어가는 추세이긴 하나, 자녀양육은 여성의 몫이라는 고정관념과 가부장제 이데올로기는 가정내 대소사에 여전히 존재한다. 그 결과 소위 현대식 교육을 받고 사회참여에 적극 나서는 여성일수록 사회인과 가정주부 사이에 역할갈등을 더욱 심하게 느끼고 그 안에서 타협·조정하게 된다. 게다가, 가정내 부부간의 역할분배는 자녀들이 성장함에 따라 달라지므로 더욱 복잡한 양상을 드러낸다. 아울러 부모들이 자신의 역할을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따라 부부간의 역할 분배가 달라지기도 한다. 아 물론, 부모들은 각자 자신의 가정안에서 부부간에 역

9) 6, 70년대 산업화와 함께 누린 경제적 여유, 학교교육을 받은 기간의 확대, TV를 통해 형성된 대중문화라는 시대 상황 속에서 성장한 오늘의 3, 40대 부모들은, 일제시대와 6, 25 등을 통해 배교품이 무엇인지를 생생하게 경험했고 전통문화의 뿌리를 다소나마 간직했던 그들의 부모 세대와는 달리 보다 '민주적'인 방식으로 자녀들을 키우고자 했다. 실제 그렇게 되기도 했다. 하지만, 3, 40대의 부모들에게도 그들의 부모세대로부터 물려받은 전통이 희미하게나마 남아 있는 것도 또한 사실이다. 따라서, 어찌보면 자녀교육에 있어 전통적 방식과 소위 '민주적'방식이 뒤섞여 뭐가 뭔지 모를 상태로 자녀들을 키우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할분배를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자각하는 일이 부모교육에 관한 지식습득에 앞서야 할 과제이다.

부모-자녀 관계도 크게 달라지고 있다. 첫째, 부모들의 자녀관, 가족관계관이 변하고 있다. 젊은층의 부모일수록 자녀에 대한 양육 태도가 엄격하기 보다는 허용적이며, 가장중심의 가족관계보다는 개개 가족원의 개성이 반영된 횡적 가족유대를 선호하고 있다. 비록 이들이 민주적 양육을 내세우고는 있으나, 자녀들에게 과잉보호와 통제의 결여를 드러냄으로써 많은 교육적 문제를 야기시킨다. 특히 도시 중류 가족의 경우는, 자녀들의 욕구를 무한정 충족시키는 것이 부모의 역할인 양 생각하는데, 이는 부모가 성장할 당시 자신들의 결핍된 욕구를 보상하려 하기 때문이다. 둘째, 가정에서 부모와 자녀 간의 접촉시간이 절대적으로 줄어 들고 있다. 산업화에 따른 직종의 다양화로 대부분 직장가정이 분리되었고, 가장은 사회 경쟁속에서 자신을 지켜 나가기에 바쁘고 가정주부들은 취업하거나 사회활동에 참여하는 경향이 높아져 가며, 아이들도 학교교육기간의 연장과 과외학습 활동의 증가 등으로 가정에 머무는 시간 역시 줄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혼율 상승에 따른 편부모가족, 재혼가족들이 많아지고, 미혼모까지 속출하고 있는 상태이다. 셋째, 앞서 언급했듯이, 비록 부모들이 자녀들과의 관계에서 민주적 양육태도를 견지하려고는 하나, 실제로는 가부장제적 가정에서 성장하면서 가부장제적 가족관계를 몸에 익혀 왔기 때문에 - 대부분의 도시인은 어린시절을 농촌에서 보낸 후 도시로 이주했다 - 부모역할을 혼돈하고 있다. 즉, 표면적으로는 새로운 사회체제를 지향하면서도 내면적으로는 가부장제적 이데올로기에 지배되어 부모로써 자신감을 잃고 자녀들에게 적절한 모델이 되지 못한다. 게다가 이러한 이중성은 부모의 권위를 상실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했으며, 더욱 심화되어 좁은 범위의 가족의 이익만을 고려하는 가족이 기주의를 형성하여 부모들로 하여금 자기 자녀에 대한 과보호 내지 자녀 위주의 방임주의를 결과했다. 넷째, 학습조력자로서 부모의 역할이 커져가고 있다. 현대 사회에서 학교교육이 사회이동의 중요한 수단임을 부정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한편, 우리는 '혈연적 수직구조'의 원칙 아래 토지를 상속의 대상으로 삼아 왔던 전통을 지니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오늘날 우리 부모들이 온갖 수고를 감수하더라도, 현대 사회생활에서 가장 유리하게 작용하는 학교교육을 자녀들에게 물려 주려고 마음먹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 그리하여 부모들은 자녀들이 가장 듣기 싫어하는 "공부하라"는 말을 알면서도 많이 하게 되며, 아이들은 국민학교 때부터 입시공부 태세에 돌입하고, 고등학생이 되면 거의 학교나 독서실에서 시간을 보내고 가정은 완전히 잠자는 곳에 지나지 않게 된다. 학생 뿐만 아니라 부모, 사회 모두가 「집단적인 입시 강박증」<sup>10)</sup>에 걸리고 만다. 이처

10) 이동원(1986). 현대사회의 부모의 역할. 한국교육학회 유아교육연구회(편). 부모교육프로그램 탐색. 서울: 창지사, 45.

럼, 변화하고 있는 부모-자녀 관계의 현실을 부모 자신의 삶 속에서 주체적으로 깨닫는 일은 부모교육에 관한 기술적 지식이나 기능 습득에 앞서서 이뤄져야 할 것이다.

한편, 오늘날의 부모들은 자신과 자신의 자녀의 교육을 담당하는 학교교사와의 관계, 나아가 자녀의 교육에 관한 정책을 입안하고 집행하는 교육의회나 교육행정 당국과의 관계, 자신과 자신의 자녀들에게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대중매체와의 관계, 자신과 자신의 자녀들의 교육환경인 지역사회와의 관계 등을 자각할 필요가 있다. '각성의 주체'로서 학부모는 단지 주어진 정보나 지식, 그리고 교육현실을 무조건 당연하게 여기기보다 '무엇이 교육적으로 바람직한가?'라는 질문에 진지하게 답하려 하기 때문이다.

한편, 학습자로서 부모의 자각은 어떻게 이뤄져야 할 것인가? 앞서 학습자로서 부모를 '제몽의 대상'이 아니라 '각성의 주체'로 봐야 할 것을 강조했다. 그런 만큼, 학습자로서 부모가 수동적인 방식으로 학습하는 것은 지양해야 하겠다. 예컨대, 자신과 자신의 자녀, 그리고 가정과 지역사회에 대한 의식없이 부모교육 관련 전문가로부터 자녀교육에 관한 정보와 지식을 일방적으로 듣기만 해서는 곤란하다. 오히려, 부모 자신의 일상적 삶과 거기서 느끼는 어련풋한 문제들을 부모들간의 대화와 인격적 접촉을 통해 나누는 가운데, 보다 명료하게 정리하고 해결의 실마리를 찾는 '참여연구'(participatory research)식의 학습<sup>11)</sup>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학부모들 스스로가 소위 '학습동아리'(study circle)를 구성하는 것도 바람직 하겠다.<sup>12)</sup> 이 때, 부모교육 관련 전문가는 자신의 역할을 학습의 조력자(facilitators)로서 한정해야 한다.

#### IV. 맺 음 말

앞서 오늘날 우리사회의 부모교육이 보다 효과를 거두려면, 성인 학습자로서 부모에 대한 관점이 '제몽의 대상'에서 '각성의 주체'로 바뀌어야 함을 강조했다. 아울러 '무엇을 어떻게' 각성해야 할지도 소개했다. 이제 보다 구체적으로 부모교육의 발전 방안 몇 가지를 제안하면서 이 글을 맺고자 한다.

첫째, 부모교육과 관련된 사람들이 학습자로서 부모에 대한 인식을 바꿔야 하겠다. 무엇보다 부모 자신은 물론이고,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개발·기획·운영하는 직·간접의 각종 사회교육 프로그램 담당자, 부모교육 강사, 부모교육 관련 학자 및 부모교육을

11) 정지웅(1987). 사회교육방법으로서의 참여연구. 사회교육연구 제12권, 134-146.

12) 스웨덴의 '학습동아리'(study circle)는 참여식 성인교육의 한 방법으로 세계적 각광을 받고 있으며, 정부의 지원도 뒤따르고 있다. Oliber, L. P. (1987). Study circles. Washington, DC: Seven locks press 참조.

지원하는 지역사회의 여러 기관과 단체들이 오늘의 부모를 '계몽의 대상'으로 보기 전에 '각성의 주체'로 보는 노력을 해야 한다. 그렇다고 해서 부모 대상의 계몽활동을 포기하지는 것은 아니다. 계몽에 앞서 부모 스스로의 개인적, 역사적, 사회적 각성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뜻이다.

둘째, 우리 사회의 실정에 맞는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에 노력해야 하겠다. 지금껏 나와 있는 부모교육 관련 서적이나 프로그램들은 최근에 들어 많이 개선되고 있는 중이나, 아직 우리 고유의 정서를 충분히 반영하고 있지는 못한 감이 든다. 이미, 이러한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 가지 더 욕심을 부린다면, 지방의 문화전통을 고려하는 것이다. 특히, 제주는 부모-자녀 관계가 남달랐다고 본다. 제주를 비롯한 각 지방문화에 적합한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을 꿈꾸어 본다.

셋째,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의 선행작업으로서 일상적 언어나 민속에 담긴 부모로서 우리 선조들의 전통적 지혜를 발견하는 일에 노력해야 하겠다. 속담, 신화와 전설, 민요 등 구전되어 온 우리 사회의 전통문화나 부모-자녀 간의 일상적 대화내용 안에서 혹은 관혼상례나 여타의 세시풍속 안에서 우리 조상들이 자녀들을 어떻게 기르고 가르쳤는가를 찾아내려 한다면, 오늘날 우리 부모들이 자신의 뿌리를 자각하는 데 크게 기여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가치의 혼동 속에서 부모역할 갈등을 겪고 있는 오늘의 우리 부모들이 이 시대를 주체적이고 능동적으로 살아가려 할 때, 자녀들을 어떻게 돌보고 가르쳐야 할지를 모색하는 데도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을 것이다. 부모들이 자녀교육이라는 자신의 역할을 주체적으로 수행하고 반성적으로 되돌아 보는 데 진지하다면, 의당 전통문화 속에 스며 있는 일상적 삶의 지혜를 찾아나서야 할 것이다. 또, 부모교육 관련 학자들은 부모들의 이러한 주체적 학습활동을 돕기 위해, 나아가 우리사회에 적합한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구성하기 위해 일상적 언어와 민속에 담겨 있는 부모의 역할과 규범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데 한시바삐 서둘러 나서야 할 것이다.<sup>13)</sup>

13) 유안진(1990). 한국 전통사회의 유아교육.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부와 최래옥(1993). 구비문학에 나타난 자녀교육. 재단법인 청소년대화의 광장. 자녀지도를 위한 부모교육(부모교육자료 4) - 콜로기움 및 세미나 자료모음, 59-70 등이 나와 있기도 하나 아직 초보적 단계이며, 더군다나 제주문화에 바탕을 두고 부모의 역할과 규범을 제시한 연구물은 거의 없는 편이다.

## 참 고 문 헌

- 박성연(역) (1991). 인간발달 I - 아동발달 -. 서울 : 교육과학사.
- 백종억(역) (1986). 성인교육의 이론과 실제. 서울 : 덕성여자대학출판부.
- 서봉연(역) (1983). 발달의 이론. 서울 : 중앙적성출판부.
- 이동원(1986). 현대사회의 부모의 역할. 한국교육학회 유아교육연구회(편). 부모교육프로그램 탐색. 서울 : 창지사, 35-49.
- 이성진(역) (1984). 인간발달의 8단계. 이성진 외(공편). 교육심리학 논고 서울 : 정민사, 127-157.
- 유안진(1990). 한국 전통사회의 유아교육. 서울 : 서울대학교출판부.
- 정지웅(1987). 사회교육방법으로서의 참여연구. 사회교육연구 제12권, 134-146.
- 최래옥(1993). 구비문학에 나타난 자녀교육. 재단법인 청소년대화의 광장. 자녀지도를 위한 부모교육(부모교육자료 4) - 콜로기움 및 세미나 자료모음, 59-70
- 최재석(1986). 전통가족의 특성. 아산사회복지사업재단(편). 현대사회와 가족. 서울 : 아산사회복지사업재단, 37-38.
- Hoffman, L. (1979). Maternal employment. *American Psychologist* 34(10).
- Hoffman, L. (1986). Work, family, and the child. In M.S. Pallak & R.O. Perloff (eds). *Psychology and work : productivity, change, and employment* Washington, DC : APA.
- Knowles, M. (1980). *The Modern Practice of Adult Education*. Chicago : Association Press/Follett.
- Oliber, L. P. (1987). *Study circles* Washington, DC : Seven locks press.